

결핵과의 人煙

글 손인숙(인천계산고등학교 보건교사)

내가 결핵과 처음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1977년도에 졸업을 하면서 첫 직장인 인천남구보건소 결핵실에 근무하면서부터다. 그때 당시 내 꿈은 TV외화 '닥터게논'에 나오는 선진국인 미국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졸업반 때 선교사들이 무료로 가르쳐 주는 영어회화를 배우러 다녔는데 추운 날씨에 심한 목감기와 그 합병증으로 관절염에 걸리는 바람에 미국취업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기업 의무실이나 보건소 등 예방의학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미국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는 “왜 하필이면...” 하고 원망스럽기도 했는데 지금 보건교사로 근무하다 보니 예전에 결핵을 담당했던 경험이 학교결핵관리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1977년 그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이 생겼고, 보건소에 진료실이 생겨서 진료실 간호사를 공채로 모집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는 진료실이 아닌 결핵실로 발령을 받았다. 생각지도 않은 발령, 더군다나 결핵은 법정전염병이 아닌가.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 당시 힘들었던 취업여건 속에서 취직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만 했다.

사회생활이 처음인 데다가 결핵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제3종 법정전염병’이라는 것뿐. 지식도 없고 사회경험도 없는 나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결핵환자를 대하는 일은 아주 힘든 것이었다. 그리고 재발에 재발을 거듭하여 몸과 마음이 약해진 환자를 대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대학 1학년 때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면서 “앞으로 간호사가 되면 아픈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해서 나이팅게일상을 꼭! 받으리라.”고 다짐했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새내기의 사명감과 ‘결핵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라는 오기로 버텼던 것이다. 그래서 환자가 한 번 내소하면 결핵이란 어떤 병인지, 어떻게 하면 결핵을 이길 수 있는지, 투약의 중요성, 가족검진의 중요성, 금연 등 20여분 이상씩 보건교육을 하기도 했다. 이러다보니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늘어났고 불만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동료들조차도 “손양(그 당시는 그렇게들 불렀다)이 오더니 뭐가 달라졌다” “엄청 열심히다”

“뭐 이상한 과짜가 다 들어왔어” “저사람 보건소장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냐” 등등 내 이야기를 했다.

인천시내 4개 보건소별로 목표 대 실적을 주고 연말에 공문으로 등수를 발표했던 시절이었다. 그런데 인천시내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남구는 목표량도 그만큼 많아서 남구를 일등으로 올려놓는 것은 참으로 힘들었다. 그러나 샘이 많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함께 근무했던 결핵요원 선배들을 다그치기가 다반사요, 일요일에도 나가서 일을 했으니 그 언니들 편에서는 매우 당돌한 후배였을 것이다.

그때 간호사 대선배님이기도 한 우리 이모님께서 “남들이 뭐라든 소신껏 하라”는 격려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는 30년 가까운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말이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보건소장님-여자분으로 의사선생님이셨다-께서 부르시더니 “손양,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힘든 곳에서 한달을 잘 버텼으니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면서 두 손을 잡아주셨다. 나중에 들었는데 내가 근무했던 남구보건소는 워낙 텃세도 심하고 힘들어서 자리가동이 잦은 곳이었다고 한다.

당시에 결핵약으로는 1차 약만 있었는데(2차약은 1980년도에 나온 것 같다) 먹는 약으로 아이나, 파스가 있었고 영덩이에 맞는 SM이라는 스트렙토마이신 주사약이 있었다. 파스라는 약은 크기도 무척 큰 데다가 매일 10개씩이나 먹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약을 주는 나 보고 먹으라 해도 자신없는 약이 바로 그 약이다. 그래서인지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도 많았다.

SM주사는 균이 나오는 양성환자는 첫 2주간을 매일 맞아야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주사 놓는 방법을 가족에게 가르쳐주고 집에서 맞게 했다. 딱히 가족 중에 주사를 놓아 줄 사람이 없을 경우엔 내가 뇌주기도 했는데 주사부작용으로 인한 사망 등 만일의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해 보건소점종을 꺼렸기 때문에 주사를 뇌주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 또 그때는 결핵검사요원이 환자에게서 받은 객담을 결핵실 한 견에서 직접 도말검사를 했었는데 그때 현미경을 통해서 본 분홍색 막대모양의 결핵균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기억도 난다.

결핵약을 타기 위하여 환자들은 한달에 한 번씩 보건소를 찾는다. 그때마다 나는 그동안 약을 잘 먹었는지 투약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곤 했다. 결핵약을 타러 오지 않는 환자들은 직접 가정방문을 했는데 그 분들 중 정말 어렵게 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좀더 친절하게 잘해줘야겠다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곤 했다.

내가 지도한 내용대로 잘 따라주고 약이 잘 듣는 환자들은 한 달 후엔 정말 몰라보게 살이

찌고 기침도 멈추고 가래도 없어졌다면서 건강해져서 오시곤 했다. 호전되었다는 판독이 대부분이었기에 결핵담당 의사선생님의 판독이 있는 날은 기분이 매우 좋았다. 혹시 의사선생님이 오시지 못하면 그 무거운 필름을 들고 엑스레이판독을 받으러 서울까지 다니곤 했는데 일의 재미에 빠져서 힘든 줄도 몰랐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보니 길거리에서 과일노점상을 하시던 아저씨는 과일을, 무직이셨지만 마음 착한 아저씨는 공고에 다니던 아드님이 전국경연대회에서 상품으로 받은 지금의 'MP3' 만큼이나 인기가 있던 'AM/FM 겸용라디오'를 결핵완치 선물로 가져오시기도 했다. 홀로 사시던 할머니께서는 꼬깃꼬깃한 돈 500원을 가계손수건에 싸가지고 오셨고,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정수영 아저씨는 머느리를 삼으려고도 하셨다. 하지만 재발에 재발을 거듭하여 아무약도 듣지 않던 아저씨, 대학시험엔 합격했지만 신체검사에서 결핵으로 판정되어 불합격했다고 울던 학생, 폐절제술을 받으러 공주병원에 간다고 인사하러 왔던 청년 등 가슴 아픈 환자들도 많았다.

당시 나처럼 신규 간호사를 위한 '신규결핵관리요원 교육'이 있었는데, 결핵연구원에 간호사 한 분이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보건소 결핵관리요원들을 관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때 '보건세계' 책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유명하신 분들의 강의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마음 뿌듯했던 기억이 생각난다. 그때 이론교육은 물론 실습교육도 있었는데 서울시내 초등학교 한 곳을 방문하여 PPD(투베르클린 반응검사)와 BCG(결핵예방주사)-학생들이 말하는 일명 불주사-를 어린이들에게 놓는 실습도 했었다. 그때는 일회용주사기가 없어 유리로 만든 실린저와 26게이즈 짜리 주사침으로 알코올램프에 주사침을 살짝 스치면서 한 명, 한 명 집단 접종을 실시했는데, 몇 명 접종을 하다보면 주사침이 무뎠어져서 새 주사침으로 갈아야했고 좁 깊이 들어가면 임파선염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말 주사 놓는 기술을 요했다.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었지만 결핵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자신이나 가족 중에 결핵을 앓았던 경험이 계시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든 분들이 열심히었고 사명감에 불탔다. 그때 같이 근무했던 보건소 선배언니들은 지금까지도 보건소나 구청 위생과에서 팀장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다.

지금은 모든 것이 좋아져서 결핵이란 병이 없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 전부터는 특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결핵이 유행하고 있어서 보건교사인 나를 긴장케 하고 있다. "결핵이 뭐예요"라고 묻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위하여 올해도 학교현장에서 결핵균과 한판 붙어 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학교만은 '결핵제로지대'로 만들어 보려고 한다.

“결핵균아 기다려라 내가 나가신다!” ㄸ